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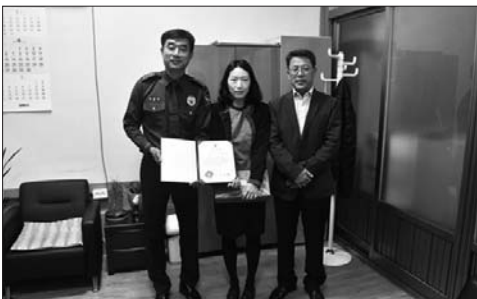


고창군 농업인 다중방문 사업장 방역용품 공급

고창군이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이 자주 방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유통센터, RPC 등 9곳에 방역용 초미립자 살포기와 약품을 공급했다.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고창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군민들에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통해 코로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코로나 예방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며 "고창군에서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농협 최유리 과장대리, 보이스포싱 예방 감사장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최근 최유리 과장대리가 1천6백만원 상당의 보이스포싱 피해를 예방하여 김제경찰서장(임종명)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제농협에 따르면 고객이 객장을 방문하여 통장에서 전액 현금인출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최유리 과장대리는 보이스포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준수하여 현금사용 용도를 묻자, 당황한 기색으로 휴대전화를 꺼지 않은 상태로 현금인출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최유리 과장대리는 동료직원에게 보이스포싱임을 알리고 김제경찰서로 신고해 보이스포싱을 사전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김제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행동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천한 최유리 과장대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는 지난 13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26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방역물품을 지원 공급했다.

전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각 시설별 소독제 20L(3개), 소독기4L(1개), 손 소독제500ML(10ea/1box) 씩을 공급했다.

고강영 협의회장은 철저한 소독을 통해 코로나19의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할머니와 손주들의 '따뜻한 기부'

김정숙씨 · 손주 손주연 양 등 삼남매, 장수군에 코로나19 방역용품 전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할머니와 손주 삼남매가 함께 구호물품을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할머니 김정숙(63)씨와 손주 손주연(14·여)·손진경(12·여)·손경태(9·남) 남매들이 마스크 130장(130만원 상당)과 손소독제 30개를 장수군에 기탁했다.

당초 할머니 김정숙 씨는 손주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손주들의 이름으로 기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손 남매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부에 동참하고 싶으며 자신들이 모아둔 세뱃돈 10만원씩을 꺼냈다.

할머니 김씨는 손주들의 의견을 존중해 함께 기탁하기로 결정했고, 삼남매들은 자신들이 모아둔 세뱃돈을 합쳐 직접 손소독제를 구매했다.

손주연 양은 "할머니와 함께 이웃들을 위한 기부를 하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다"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씨는 "손주들이 기부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함께



기부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손주들과 함께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고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이 기탁한 물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전달 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탁 된 물품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부안군, 외국인 근로자에 마스크 650개 전달

부안군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1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주)참프레에 마스크 650개를 전달했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공적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사각지대로 판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참프레에 마스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은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참프레, 코로나19 극복 닭 1000마리 기탁

부안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참프레(대표 고홍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난 13일 닭 1000마리를 부안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고홍열 참프레 대표가 참석했으며 고 대표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및 장애인 등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홍열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됐다"며 "이 힘든 시기를 하루빨리 함께 이겨내길 바라고 앞으로도 부안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 위



기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전해주시는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속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 총력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산불재난 국가위급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황 발령하고, 이에 남원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및 산내의용소방대에 배치된 화재진화차를 동원해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영농철 논·밭두렁 소각이 집중되어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로 최근 5년 봄철 임야 화재는 309건이나 된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취약시간대 소방차를 동원해 순찰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동원 및 순찰조를 편성해 4월 한 달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광수 서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제2의 고성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쓰레기 소각 및 임야 태우기를 할 경우 반드시 119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청 고속도로순찰대, '야간 이동식 무인단속' 본격화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지난 13일부터 관내 고속도로 과속 위험 구간을 대상으로 '야간 이동식 무인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 시간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구간은 심야시간대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순천~완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통영~대전선, 익산~장수선, 광주~대구선이다.

9지구대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최근 야간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구비했다.

또 고속도로 주요 통제이트 및 휴게소 플레카드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거나 교통 정보 판을 통해 홍보했다. 아울러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무인단속이 가능하도록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9지구대 관할에 설치된 이동식 무인단속 부스 29곳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